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낙인, 기대, 비자발성, 심리적 반발심의 구조적 관계*

김 미 숙[†]

윤 미 선

단국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의 관계를 파악하고 청소년 내담자의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그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에서 1회기 이상의 상담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혹은 만 13세~만18세의 남아 청소년내담자를 대상으로 197명을 참여자로 하였다.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 분석한 결과, 일부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지수를 통한 연구모형 수정을 실시하여 대체로 양호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수정된 연구모형의 효과성을 분해하였는데, 모든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남·여 청소년 내담자집단과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집단을 다중집단분석으로 연구모형의 적용성을 분석 결과, 연구모형에 적합하거나 대체로 양호하였다. 남·여 청소년 내담자집단은 심리적 반발심에서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집단은 상담에 대한 낙인과 심리적 반발심,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의 경로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와 상담신청제기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어 : 상담의 낙인, 기대, 비자발성, 심리적 반발심, 청소년 상담

* 이 연구는 김미숙(2009)의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낙인, 기대, 비자발성, 심리적 반발심의 구조적 관계’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김미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Tel : 010-4400-0470, E-mail : writer_kim@hanmail.net

상담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은 그 역사와 함께 상담으로써 중요성을 인정받아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와 함께 사회 환경적으로 독특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현장과 상담과정에 있어서도 상담자는 청소년이 상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체계화하는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여 상담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지만, 청소년 상담에 대한 효과와 과정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정찬석, 2004).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내담자와 성인내담자의 차이는 상담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이혜성 외, 199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수성, 청소년 문제가 가지는 특수성, 환경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김계현, 1996). 청소년 상담의 경우 상담을 받는 당사자인 청소년 내담자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외부의 압력으로 상담에 의뢰 되어, 상담에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보인다(김혜숙 등, 1996). 특히, 청소년 내담자는 학교상담실이나 상담기관에 스스로 내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혹은 교사에 의해 상담을 받게 된다고 한다(이혜성 외, 1996). 부모나 의뢰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상담실을 내방한 청소년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문제를 자신보다는 외부의 압력으로 생각하게 된다(Hepworth & Larsen, 1993). 청소년 내담자는 자신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담에 동기화 되어 있지 않거나(Riordan, Matheny & Harris, 1978; Vriend & Dyer, 1973), 상담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Ivanoff, 1994; Rooney, 1992;

Trotter, 1999).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는 상담 혹은 상담자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부모나 교사를 위한 존재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상담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과 ‘상담실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방한 청소년 내담자가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전까지는 ‘진정한 내담자’로 보기 어렵다(김혜숙 등, 1996). 이는 청소년의 독특성과 청소년 상담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적 상담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압력과 개입에 의한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들은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며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변화하기보다는 상담을 의뢰한 외부 압력 혹은 타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상담자에게 전달하며 하며 상담 및 상담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상담자는 비자발적인 내담자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상담 개입과 전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비자발적인 내담자와 자발적 내담자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담자들은 대부분 내담자가 직접 상담실에 찾아오거나,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와 상담하는 것을 훈련을 받는다(Larrabee, 1982). 즉, 상담자가 비자발적인 내담자와 자발적인 내담자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담의 기법과 원리를 적용한다면 상담의 효과뿐만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내담자가 바

라는 기대 내용이 달라진다(Satterfield 등, 1995)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자발적인 내담자는 자발적인 내담자에 비해서 상담에 무관심하며 상담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내담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의 대면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 사고, 행동, 감정 등의 측면에서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을 의미한다(이장호, 2005). 내담자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법들을 탐색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성숙을 위하여 상담실을 찾는다. 이때 내담자들은 상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신과 상담자의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담자가 가지는 상담에 대한 기대이다(금명자, 2002; 금명자, 이장호, 1990; Patterson, 1958; Strong, 1968; Tinsley & Harris, 1976). 즉,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감을 파악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변화하고자하는 명확한 행동변화는 물론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며 상담의 성과 또한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는 상담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요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대상과 그 대상이 되는 상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상담에 대한 기대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담과정이나 상담성과에서도 관련 있다는 것이다(금명자, 이장호, 1990).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는 상담에 있어서의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및 상담의 지속성, 그리고 상담의 효과와 효율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상담과정의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긍정적인 상담자-내담자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Dean, 1958: 양미진, 2005에서 재인용). 그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상담연구에 있어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어 왔다(Rogers, 1942: 양미진, 2005에서 재인용).

청소년 상담이 성인상담과 달리 심리적 반발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내담자 스스로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변화를 거부하고 부모나 교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상담실에 보내기 때문이다. 심리적 반발심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행동에 주인으로서 스스로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며, 표현방식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의 경향을 의미한다(Brehm, 1966: 조성호, 1997에서 재인용). 심리적 반발심은 부분적으로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일 수 있는데 이는 개인들은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았을 때 나타내는 반발의 정도에 있어서 상황-특정성을 떠나서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Brehm & Brehm, 1981: 김인규, 1995에서 재인용). 따라서 심리적 반발심의 경향성은 상황특수적인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상황 간에 비교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는 성격의 한 구성개념이다. 이는 자유의 위협에 대해 저항하고 반발하게 하는 성격의 한 구성요소이며, 사람에 따라 그 강도와 표현양식이 달라지는 개인차 변인인 것

이다. 심리적 반발 이론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해 보라고 권유하거나 명령을 내릴 때, 상담자의 지시와 명령을 내담자는 자기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항이나 불복하는 자세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상담자의 노력들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반발심은 정신 역동적 개념인 저항과도 관련될 수 있다(Tracey, Ellickson, & Sherry, 1989). Brehm과 Brehm(1981; 김인규, 1995에서 재인용)은 심리적 반발 개념을 상담 장면에서 응용가능성을 논의하면서 내담자의 반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예: 일방적인 치료적 지시나 제안 혹은 기법의 적용보다는 내담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담자 저항을 줄이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내담자는 상담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에서 자신의 선택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상담이 가지는 상황적 특수성과 개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반발심과 더불어 상담에 대한 기대를 저해하고 상담의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상담에 대한 낙인을 들 수 있다. Goffman(1963; 황채운, 2003에서 재인용)은 낙인(stigma)에 대한 정의를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유지되는 속성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했으며, Corrigan(2004)은 낙인을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으로 세분화하였다. 사회적 낙인은 일반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을 받는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Vogel et al., 2007). 사회적 낙인과는 달리 낙인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낙인

에 대해서 내재화하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자기 낙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끼며 일을 구하려는 것에도 회의적인 것을 말한다(Corrigan, 2004). 사회적 낙인은 내담자가 가지는 상담에 대한 태도에서도 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Komiya et al., 2000; Vogel et al., 2005)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것을 꺼리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Goodyear와 Parish(1978; 황채운, 2003에서 재인용)의 연구를 살펴보면 ‘보통 사람’보다 ‘상담을 받는 내담자’와 ‘상담을 받는 환자’를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상담을 받는 보통 사람’과 ‘상담을 받는 내담자 혹은 환자’보다 ‘보통 사람’을 더 호의적으로 본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심리적 문제나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의 행동들을 저해하는 핵심동기로 볼 수 있으며(Mechanic, 1980; 박준호, 2008에서 재인용), 한국의 경우도 자기 낙인이 사회적 낙인과 함께 전문적 도움을 추구함에 있어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지, 손은정, 2007). 지금까지의 낙인에 대한 연구는 상담 및 정신 건강 서비스의 이용률과 낙인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낙인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 받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낙인이지만 상담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낙인에 대한 논의(Sibicky & Dovidio, 1986; Judge, 1997)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 상담에서 내담자가 가지는 발달적 특수성과 상황적 요인들로 인한 ‘상담에 대한 기대’가 일반적인

상담과 차이가 있음을 가정해 보았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심리적 특성은 주체성을 확립하고 독립하려는 한편, 행동은 열성적이며 자의식이 명확해지며(한덕웅, 박준호, 2005) 상대적으로 독립심과 반항심이 강해진다.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적 반발심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반발심은 우울증과 가족 문제, 학교 적응, 반사회적 경향과도 관련성이 있다(박운하, 1998; Joubert, C. E., 1990)는 점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 상담이 ‘자신의 의지’에 의한 상담이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한 상담을 받게 되므로 내담자인 청소년은 상담에 대해서 비자발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의 요인인 심리적 반발심은 물론 상담을 받게 되는 환경적 요인인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이 청소년이 가지는 상담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기대’가 상담의 일반적 인식 요인인 ‘상담에 대한 낙인’, 개인적 요인인 ‘심리적 반발심’, 상담과정 중에 나타나는 반응인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을 변인으로 선정하여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를 예측하는 가설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였으며 구조적 모형을 통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보고자하는 탐색적 연구인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낙인, 심리적 반발심, 비자발성, 상담에 대한 기대 간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각각의 변인들 중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있는 것을 탐색해 보는 일련의 노력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연구결과는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상담 효과를 높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담에 대한 기대 예측경로에서 성별과 상담신청제기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여 청소년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집단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비자발적 상담이 상담 신청의 계기에 있어서 ‘타의에 의한 비자발적 상담신청’과 상담의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사이에 모호함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의한 자발적 상담 신청한 경우를 ‘자의적 상담’, 그리고 자신의 의사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 상담 신청을 했을 경우 ‘타의적 상담’으로 분류하여 타의적 상담을 비자발적 상담으로 보았다. 그리고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담에 임하는 태도, 상담에 대한 참여도와 상담을 통한 행동변화의 동기에 대해서는 상담회기에 따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설문조사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설문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자의적 상담신청 집단과 타의적 상담신청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 청소년의 특성과 비자발적 내담자에 대한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청소년 내담자가 가지는 상담에 대한 낙인과 기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였다. 또한 내담자 개인적 요인인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과정과 상담진행 중에 현재의 시점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변인간의 관계와 영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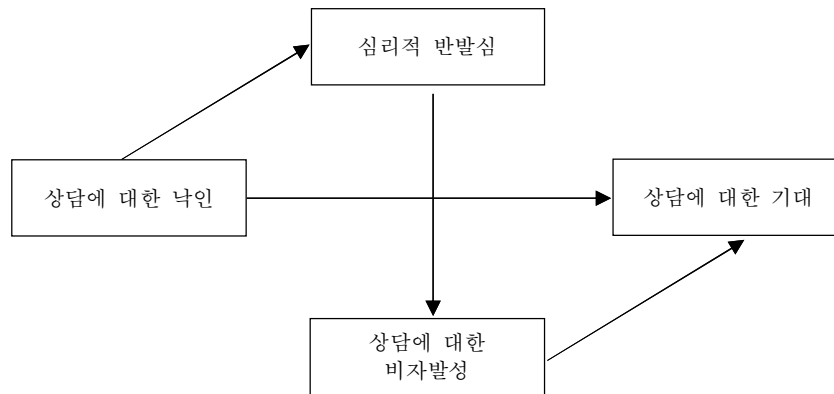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내담자가 가지는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경로의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경로를 분석하여 이들의 관계와 매개 역할을 알아본다.

둘째,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와 효과성을 분해하여 매개변인 간에 인과적 관계를 탐색한다.

셋째, 연구모형의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로 구분한 남·여 청소년 내담자집단과 상담신청계기에 따른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집단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각 집단 간 연구모형의 경로와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고 집단 간의 차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소재의 총 12개의 각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지

역상담기관의 청소년 내담자 19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비율은 표 1에 제시하였는데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15.53세, 표준편차는 1.56세이며, 남자청소년 내담자는 53.8%, 여자청소년 내담자는 46.2%로 나타났다. 상담신청 계기가 상담에 대한 자의적 의지에 따라 신청한 자의적 상담신청 집단과 외부강요에 의한 타의적 상담신청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자의에 의한 상담은 38.6%였으며, 타의에 의한 상담은 61.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남·여 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신청계기에 따른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 내담자의 상담 실태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남자 내담자의 경우 타의에 의한 상담이 68.9%였으며 이전에 상담 받은 경험은 26.4%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는 자의에 의한 상담이 47.3%, 타의에 의한 상담이 52.7%의 분포를 보였다. 이전에 상담 받은 경험에 대해서도 있다는 46.2%, 없다는 52.7%로 나타났다. 자의적 상담신청집단의 경우 남자청소년 내담자가 43.4%, 여자청소년 내담자는

표 1. 연구 참여자의 성별과 상담신청계기에 따른 연령별 분포

연령	남	여	자의	타의	합계
12	1(0.9%)	3(3.3%)	3(3.9%)	1(0.8%)	4(2.0%)
13	9(8.5%)	8(8.8%)	6(7.9%)	11(9.1%)	17(8.6%)
14	21(19.8%)	13(14.3%)	9(11.8%)	25(20.7%)	34(17.3%)
15	17(16.0%)	23(25.3%)	10(13.2%)	30(24.8%)	40(20.3%)
16	27(25.5%)	15(16.5%)	17(22.4%)	25(20.7%)	42(21.3%)
17	15(14.2%)	24(26.4%)	19(25.0%)	20(16.5%)	39(19.8%)
18	15(14.2%)	5(5.5%)	11(14.5%)	9(7.4%)	20(10.2%)
19	1(0.9%)	0 (0%)	1(1.3%)	0(0%)	1(0.5%)
평균	15.6세	15.44세	15.82세	15.35세	15.53세
표준편차	1.590	1.529	1.703	1.442	1.560
합계	106(53.8%)	91(46.2%)	76(38.6%)	121(61.4%)	197명(100%)

표 2.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 현황

		빈도(명)				백분율(%)			
		남	여	자의	타의	남	여	자의	타의
이전 상담 경험	있다	28	42	36	34	26.4	46.2	47.4	28.1
	없다	78	48	39	87	73.6	52.7	51.3	71.9
	무응답	0	1	1	0	.0	1.1	1.3	.0
전 체		106명	91명	76명	121명	100%	100%	100%	100%

56.6%로 여자가 많았으며 자의적 상담신청집단의 51.4%가 이전에 상담 받아 본 경험은 없다고 하였다. 타의적 상담신청 내담자의 경우는 남자청소년 내담자가 60.3%, 여자청소년 내담자는 39.7%로 남자가 많았으며 이전에 상담 받아 본 경험은 없다가 71.9%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상담에 대한 낙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낙인을 측정하기 위해 Judge(1997)가 개발한 ‘상담에 대한 낙인척도(Psychotherapy and Stigma Scale: PASS)’를 황채운(2003)이 번안 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23개의 문항과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상담에 대한 낙인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상담 받는 것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68, ‘상담이나 내담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88이었으며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81로 나타났다.

상담에 대한 기대 척도

본 연구에서는 Tinsley, Workman과 Kass (1980)에 의해 개발된 '상담에 대한 기대 (Expectations About Counseling Questionnaire: E. A.C)'질문지를 박애선(198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척도는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내담자의 특성,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상담자 특성, 상담과정의 특성, 상담효과를 6

표 3. 상담에 대한 기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분류	하위척도	문항수	Cronbach's α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동기성	3	.876
	개방성	3	.908
	책임성	4	.889
내담자 특성	현실성	9	.614
	수용성	3	.913
	직면성	3	.917
	지시성	3	.865
	공감성	3	.864
	솔직성	2	.886
	양육성	2	.901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자기공개	3	.870
	호감성	3	.885
	전문성	3	.919
	인내성	3	.796
상담과정 특성	신뢰성	2	.801
	구체성	3	.899
	즉시성	3	.896
상담 효과	결과	3	.932
	전체	58	.978

개로 분류하여 총 1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상담에 대한 기대 척도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7이며 하위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문항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의 표준화된 측정도구 대신 이장호 외(2005), Vriend와 Dyer(1973)의 선행연구 내용을 연구자가 수정하여 총 10개 문항화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과 가장 비슷한 항목에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자기보고형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문항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심리적 반발심 척도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반발심을 측정하기 위해 Hong과 Page(1989)가 개발한 'Hong 심리적 반발심 척도(Hong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를 홍성목, 김선주, 이만영(1994)이 번안

표 4. 심리적 반발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수	Cronbach's α
동조에 대한 반발심	4	.761
충고나 권고에 대한 반발심	3	.726
의존에 대한 반발심	2	.721
타인으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저항	2	.677
전체	11	.901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개의 하위척도로 총 11문항이며 각 문항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반발심 척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1이었으며, 하위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소재의 총 12개의 각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지역 상담기관에서 1회기 이상 상담 받고 있는 만 13세~만 18세의 청소년 내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담센터에서 설문이 누락되거나,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질문에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이 중에서 197명(회수율 36.5%)의 자료를 최종적인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PSS 16.0 program과 AMOS 16.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AMOS를 이용한 경로 모형(path analysis)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자료에서 주어지는 표본공분산의 행렬과 연구모형에서 예측되는 공분산 사이의 을 최소화시키는 최소자승법(Least Squares)과 표본자료 산출가능성(likelihood)을 최대화하여 모수 추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사용하였다(김석용 외, 2009). 상담에 대한 낙인이 상담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이 갖는 경로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Shrout와 Bolger(2002)에 의하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정

할 때, 자료가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거나 추정된 계수가 정상분포를 가정할 수 없을 경우에 부트스트랩(Bootstrap)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개모형과 집단 간 매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와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사용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남·여 청소년 내담자집단으로 나누어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이는 남자청소년 내담자는 31.1%가 자의에 의한 상담을 받고 있었으며 여자청소년 내담자는 47.3%가 자의에 의한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집단의 차이가 상담에 대한 낙인, 기대, 비자발성, 심리적 반발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뿐만 아니라 자의에 의한 상담신청은 38.6%이며 타의에 의한 상담신청은 61.4%로 나타나 상담신청계기에 의한 집단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집단으로 나누어 확인해보았다. 성별에 따른 남·여 청소년 내담자집단과 상담신청계기에 따른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집단에 대한 경로계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은 두 집단의 특정한 경로에 등가제약을 가함으로써 측정된 경로에 등가제약을 가한 보다 간명한 모형과 등가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간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분석방법이다(김석용 외, 2009).

연구결과

연구모형 분석에 필요한 상관행렬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상담에 대한 낙인, 심리적 반발심,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과 상담에 대한 기대의

상관 결과를 보면 모든 변인들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관계에 있으며 변인 간의 상관 범위는 .146~.580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상관을 확인해보면 상담에 대한 낙인과 비자발성이 .196, 상담에 대한 낙인과 기대는 .171, 그리고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기대가 .146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과 심리적 반발심의 상관은 .206이며, 상담에 대한 낙인과 심리적 반발심은 .326으로 중간 수준의 상관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과 기대는 -.580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med fit index), TLI(Tuker-Lewis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fit-index)가 모두 기준치인 .90이상이어야 하며, CFI(comparative fit index)는 .95이상, RER (rootmean square residual)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fit index)는 .05이하, PGFI (parsimonious goodness-of-fit-index)는 0~1사이에서 1에 가까울 때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배병렬, 2009). 하지만 연구모형의 GFI와 IFI, RER을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는 기준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지수를 통한 모형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지수에 의한 모형 재설정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지수에 의한 수정연구모형으로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기대의 오차항 간의 공분산 연결하여 재실행하였으며 수정지수에 의한 수정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5. 전체 상관행렬 및 평균과 표준편차 (n = 197)

	비자발	낙인	반발	기대
비자발	1			
낙인	.196**	1		
반발	.206**	.326**	1	
기대	-.580**	.171*	.146*	1
평균	2.222	3.236	3.113	3.450
표준편차	0.742	0.689	0.754	0.673

* $p < .05$, ** $p < .01$

비자발=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낙인=상담에 대한 낙인, 반발=심리적 반발심, 기대=상담에 대한 기대

표 6. 연구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모형	χ^2	GFI	NFI	TLI	IFI	CFI	AGFI	PGFI	RER	RMSEA
연구 모형	16.958 (df=2)	.959	.890	.698	.902	.899	.796	.192	.039	.195

적합 기준: GFI, NFI, TLI, IFI, AGFI .90이상, CFI .95 이상, RER, RMSEA .05이하, PGFI 0~1사이

표 7. 연구모형의 수정지수

		M.I.	Par Change
심리적 반발심	↔ 상담에 대한 기대	12.391	.091

표 8. 수정연구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모형	χ^2	GFI	NFI	TLI	IFI	CFI	AGFI	PGFI	RER	RMSEA
수정연구 모형	4.660 (df=1)	.988	.970	.852	.981	.975	.904	.099	.025	.120

적합 기준: GFI, NFI, TLI, IFI, AGFI .90이상, CFI .95 이상, RER, RMSEA .05이하, PGFI 0~1사이

GFI, NFI, IFI, CFI, AGFI, PGFI, RER의 적합도 지수는 개선되어 기준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TLI .852, RMSEA는 .120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RMSEA와 TLI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적합도를 보이지만 GFI .998, CFI .975로 기준치보다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체로 양호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성태제,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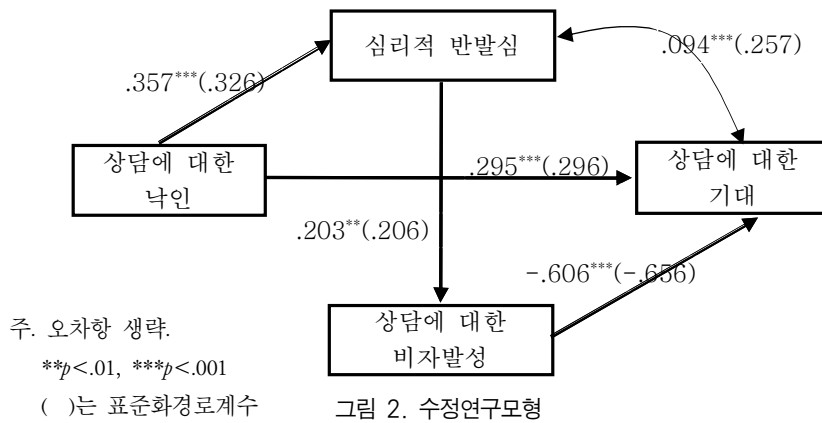
그리고 비표준화 계수(B)와 C.R.(Critical Ratio)을 통해서 수정연구모형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고, 표준화된 계수(β)를 통하여 모형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수정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에서 모든 경

로계수는 유의수준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수정연구모형에서 모든 변인들의 경로계수는 물론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기대간의 공분산 경로계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p<.05$), 이는 모든 C.R.값이 1.96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비표준화계수(B)가 모두 유의수준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외생변인인 상담에 대한 낙인이 각각의 내생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준화계수(β)를 살펴보면 상담에 대한 낙인이 심리적 반발심(.326), 상담에 대한 기대(.296)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상담에 대한

표 9. 수정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모수		B	β	SE	C.R.	p
심리적 반발심	← 상담에 대한 낙인	.357	.326	.074	4.828	***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낙인	.295	.296	.053	5.539	***
상담에 대한 비자발	← 심리적 반발심	.203	.206	.069	2.947	.003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비자발	-.606	-.656	.049	-12.445	***
심리적 반발심	↔ 상담에 대한 기대	.094	.257	.027	3.429	***

*** $p<.001$



비자발성이 상담에 대한 기대(-.656)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lein(1998)에 의하면, 경로계수의 절대값 크기가 .30과 .50이상은 큰 효과를 나타내고 .10과 .30사이는 중간 효과를 나타내며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박준호, 2008, 재인용). 상담에 대한 낙인과 심리적 반발심의 경로계수는 $\beta = .326$ 으로 큰 정적(+)효과를 나타냈다.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과 상담에 대한 기대의 경로계수는 $\beta = -.656$ 으로 가장 큰 부적(-)효과를 나타냈으며 다른 경로계수에서는 중간효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에 이르는 직접경로를 비롯한 다른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고, 내생변인들 간의 관계 또한 그 방향성 및 영향력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에서 내생변인으로 설정한 심리적 반

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상담에 대한 기대의 다중상관 자승치($SMC=R^2$)를 제시하였으며 수정연구모형에서 외생변인인 상담에 대한 낙인에 의해 다른 내생변인들이 얼마나 설명되는지 변량을 확인해 보았다. 예측변인인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이 상담에 대한 낙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10%와 4%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담에 대한 기대가 상담에 대한 낙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 44%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담에 대한 낙인, 심리적 반발심,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이 청소년 내담자가 가지는 상담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해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집단 간 매개모형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사용하였으며 원 자료 표본($n=197$)에서 비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자료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였다. 신뢰

표 10. 연구모형의 내생변인들에 대한 다중상관 자승치

내생변인	심리적 반발심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상담에 대한 기대
SMC	.106	.042	.442

표 11. 수정연구모형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및 유의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심리적 반발심 ← 상담에 대한 낙인	.326 (p=.002)	-	.326 (p=.002)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 상담에 대한 낙인	-	.067 (p=.007)	.067 (p=.007)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낙인	.296 (p=.002)	-.044 (p=.007)	.252 (p=.002)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 심리적 반발심	.206 (p=.007)	-	.206 (p=.007)
상담에 대한 기대 ← 심리적 반발심	-	-.135 (p=.007)	-.135 (p=.007)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656 (p=.002)	-	-.656 (p=.002)

구간의 비율은 95%에서 설정되었으며 표 11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제시하였다.

수정연구모형에서 각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면, 상담에 대한 낙인이 상담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든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심리적 반발심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간접효과는 $-.135, p = .007$,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직접효과는 $-.656, p = .002$ 로 부정(-)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직접효과는 $.296, p = .002$ 를 나타내는 반면, 간접효과는 $-.044, p = .007$ 로 부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상담에 대한 낙인이 상담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이 부정(-) 영향을 주어 총 효과를 상쇄시켰음을 알 수 있다.

집단 간의 다중집단분석 적용

남여청소년 내담자 집단의 측정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은 상이한 조건에서의 측정이 동일하게 속성을 가지는지를 측정하고 있음을

표 12. 성별에 따른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측정동일성검증

Model	χ^2	df	p	GFI	NFI	IFI	TLI	CFI	RMSEA
자유모형	5.729	2	.057	.986	.968	.979	.866	.978	.098
제약모형	6.605	6	.359	.984	.963	.997	.993	.996	.023

적합 기준: GFI, NFI, TLI, IFI .90이상, CFI .95 이상, RMSEA .05이하

의미한다(배병렬, 2009). 따라서 각 집단이 측정변인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표 12에서는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인 비교집단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각각의 집단이 모두 χ^2 의 값이 df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두 모형의 적합도가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χ^2 값으로 두 모형 간에 차이를 살펴보면 제약모형은 $\Delta\chi^2$ 값이 .876으로 $\Delta df=4$ 보다 낮으며 유의확률도 .928로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제약모형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두 집단이 설문 문항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하였음(우종필, 2009)을 뜻하며 측정동일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다중집단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청소년 내담자집단의 상담에 대한 낙인의 상담에 대한 기대에서 매개변인인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이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지지되고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대립가설은 기각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여청소년 내담자 집단의 다중집단분석

표 13의 남녀청소년 내담자집단의 수정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집단은 GFI=.974, NFI=.943, TLI=.699,

CFI=.950, IFI=.952, RMSEA=.211, $\chi^2=5.687(df=1)$ $p=.017$ 로 나타났다. 여자 집단은 GFI=1.000, NFI=.999, TLI=1.077, CFI=1.000, IFI=1.012, RMSEA=.000, $\chi^2=.046(df=1)$ $p=.831$ 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 집단은 TLI와 RMSEA는 적합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외의 GFI, CFI지수가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양호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성태제, 2007).

표 14의 남녀 청소년 내담자 집단의 경로계수가 제시하였다. 남자 집단과 여자 내담자집단은 상담에 대한 낙인과 심리적 반발심의 경로(a1, b1),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기대의 경로(a3, b3), 그리고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과 상담에 대한 기대의 경로(a4, b4),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기대의 공분산 경로(a5, b5)는 유의수준 $p=.05$ 에서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이는 C.R.값이 모두 1.96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심리적 반발심에서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의 경로(a2, b2)에서 남자 집단의 경로계수(a2)는 .283으로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미하였지만, 여자 집단의 경로(b2)는 비표준화계수(B)가 .174, 유의확률 .094로 나타나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는 C.R.값 또한 1.677로써 1.96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심리적 반발심의 경로계수는 남자

표 13. 남녀청소년 내담자집단의 수정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남 n=106, 여 n=91)

모형	χ^2	χ^2/df	p	GFI	NFI	TLI	CFI	IFI	RMSEA
남자청소년 내담자집단	5.687 (df=1)	5.687	.017	.974	.943	.699	.950	.952	.211
여자청소년 내담자집단	.046 (df=1)	.046	.831	1.000	.999	1.077	1.000	1.012	.000

적합 기준: GFI, NFI, TLI, IFI .90이상, CFI .95 이상, RMSEA .05이하

표 14. 남녀청소년 내담자집단의 수정연구모형 경로계수

모수			B	β	SE	C.R.	p	
심리적 반발심	← 상담에 대한 낙인	남	.421	.398	.095	4.444	***	a1
		여	.389	.382	.099	3.923	***	b1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낙인	남	.316	.307	.073	4.330	***	a3
		여	.261	.263	.077	3.402	***	b3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 심리적 반발심	남	.283	.281	.094	2.999	.003	a2
		여	.174	.174	.104	1.677	.094	b2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남	-.678	-.702	.069	-9.820	***	a4
		여	-.663	-.679	.074	-8.990	***	b4
심리적 반발심	↔ 상담에 대한 기대	남	.083	.233	.037	2.249	.025	a5
		여	.090	.262	.038	2.378	.017	b5

*** $p < .001$

집단은 $\beta = .398$, 여자 집단 $\beta = .382$ 로 큰 정적 (+) 효과를 나타냈고,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경로계수에서는 남자 집단은 $\beta = .307$ 로 큰 효과를 나타냈지만, 여자 집단은 $\beta = .263$ 으로 중간 효과를 보였다. 심리적 반발심에서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의 경로에서는 남녀청소년 내담자집단 모두 중간효과를 나타냈고,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경로계수는 남자 집단은 $\beta = -.702$, 여자 집단은 $-.679$ 로 두 집단 모두 큰 부적(-)효과를 보였다.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기대의 공분산 경로에서는 남녀 모두 중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의 경로(a2, b2)는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녀 청소년 내담자집단은 심리적 반발심에서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에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내담자의 성별에 따른 효과성 분해와 유의도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남자 집단은

모든 경로에서 효과성이 각각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여자 집단의 경우는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066, $p = .109$)와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045, $p = .109$)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기대에서의 간접효과는 남자 집단은 $-.197$, $p = .007$, 여자 집단은 $-.118$, $p = .109$ 로 부적(-)효과를 보였으며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직접효과 역시 남자 집단은 $-.702$, $p = .002$, 여자 집단은 $-.679$, $p = .002$ 로 나타나 모두 부적(-)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는 남자 집단은 $.307$, $p = .002$, 여자 집단은 $.263$, $p = .003$ 이며,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남자 집단은 $-.078$, $p = .007$, 여자 집단은 $-.045$, $p = .109$ 로 부적(-)효과를 보이지만 총 효과에서는 남자 집단은 $.229$, $p = .009$, 여자 집

표 15. 남아 청소년내담자 집단의 효과성 분해 및 유의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남	여	남	여	남	여
심리적 반발심 ←	상담에 대한	.398	.382	-	-	.398	.382
	낙인	(p=.002)	(p=.002)	-	-	(p=.002)	(p=.002)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	상담에 대한	-	-	.112	.066	.112	.066
	낙인	-	-	(p=.007)	(p=.109)	(p=.007)	(p=.109)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307	.263	-.078	-.045	.229	.218
	낙인	(p=.002)	(p=.003)	(p=.007)	(p=.109)	(p=.009)	(p=.009)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	심리적	.281	.174	-	-	.281	.174
	반발심	(p=.007)	(p=.109)	-	-	(p=.007)	(p=.109)
상담에 대한 기대 ←	심리적	-	-	-.197	-.118	-.197	-.118
	반발심	-	-	(p=.007)	(p=.109)	(p=.007)	(p=.109)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702	-.679	-	-	-.702	-.679
	비자발성	(p=.002)	(p=.002)	-	-	(p=.002)	(p=.002)

단 .218, $p=.009$ 로 모두 정적(+)효과를 나타내어 직접효과보다 다소 낮은 효과를 보였다. 즉, 상담에 대한 낙인이 상담에 대한 기대로 가는 경로에서 남아청소년 내담자 집단 모두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이 부정적(-)효과로 작용하여 총 효과가 상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로계수에서의 성별에 따른 모수 차이는 남아청소년 내담자집단의 모수 쌍대비교 하는 C.R.값을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a1과 b1, a2와 b2, a3과 b3, a4와 b4의 대응하는 모수의 쌍대비교 차이는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두 집단 간의 서로 대응하는 모수의 차이는 유의수준 $p=.05$ 에서 C.R.값이 1.96보다 모두 작으

표 16. 남아 청소년 내담자 집단의 모수 쌍대비교 차이

	a1	a4	a3	a2
b1	-.234	8.831	.594	.778
b4	-9.030	.145	-9.437	-7.905
b3	-1.313	9.098	-.518	-.177
b2	-1.762	6.841	-1.121	-.777

남자청소년 내담자 집단의 경로 = a, 여자청소년 내담자 집단의 경로 = b

표 17. 남녀 청소년 내담자집단의 경로 제약 결과표

경로제약	χ^2	df	$\Delta \chi^2/df$	$\Delta \chi^2/Sig.dif$
자유모형	5.729	2		
심리적 반발심 ← 상담에 대한 낙인 (a1=b1)	5.784	3	0.055	non Sig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 심리적 반발심 (a2=b2)	6.331	3	0.602	non Sig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낙인 (a3=b3)	5.986	3	0.257	non Sig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a4=b4)	5.749	3	0.02	non Sig

df=1, $\Delta \chi^2/df \geq 3.84$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므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에서는 남녀청소년 내담자집단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Delta \chi^2/df \geq 3.84$)를 나타내는 경로는 모든 경로가 $\Delta \chi^2/df$ 는 3.84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두 집단의 경로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경로제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 집단의 측정동일성 검증

표 18에서는 자유모형인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 집단과 제약모형인 비교집단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각 집단의 χ^2 값이 df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두 모형의 적합도가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χ^2 값이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제약모형은 $\Delta \chi^2$ 값이 7.333로 $\Delta df=4$ 보다 높으나 유의확률 .119로 유의수준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에서 설문 문항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하였음(우종필, 2009)을 의미하며 측정동일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집단 간의 경로 분석이 가능하여 다중집단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집단이 상담에 대한 낙인의 상담에 대한 기대에서 매개변인인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이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지지되며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대립가설은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담신청제기에 따른 집단 간의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집단의 다중집단 분석

표 19의 상담신청제기에 따른 집단의 수정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의적 집단은 GFI=.999, NFI=.998, TLI

표 18.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 집단에 대한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의 측정동일성검증

Model	χ^2	df	p	GFI	NFI	IFI	TLI	CFI	RMSEA
자유모형	6.579	2	.037	.984	.958	.971	.812	.969	.108
제약모형	13.911	6	.031	.967	.912	.948	.892	.946	.082

적합 기준: GFI, NFI, TLI, IFI .90이상, CFI .95 이상, RMSEA .05이하

표 19.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집단의 수정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자의 n=76 타의 n=121)

모형	χ^2	χ^2/df	p	GFI	NFI	TLI	CFI	IFI	RMSEA
자의적상담 신청집단	.091 (df=1)	.091	.763	.999	.998	1.021	1.000	1.015	.000
타의적상담 신청집단	6.500 (df=1)	6.500	.011	.974	.943	.693	.949	.951	.214

적합 기준 : GFI, NFI, TLI, IFI .90이상, CFI .95 이상, RMSEA .05이하

=1.021, CFI=1.000, IFI=1.015, RMSEA=.000, $\chi^2=.091(df=1)$ $p=.763$ 으로 나타났다. 타의적 집단은 GFI=.974, NFI=.943, TLI=.693, CFI=.949, IFI=.951, RMSEA=.214, $\chi^2=6.500$ ($df=1$) $p=0.11$ 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0에 자의적 집단은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심리적 반발심에 이르는 경로(a1)의 비표준화계수(B)는 .241이며 유의확률 .064이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미하지 않았고, 심리적 반발심에서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경로(a2)의 비표

준화계수(B)는 .300, 유의확률 .590이 유의수준 $p=.05$ 에서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C.R.값이 1.862로 나타나 1.96보다 작아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자의적 집단과 타의적 집단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의적, 타의적 두 집단 모두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 경로(a3, b3)의 β 은 큰 정적(+) 효과를 나타낸 반면,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 경로(a4, b4)의 β 는 큰 부적(-)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상

표 20.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집단의 수정연구모형 경로계수

모수	B	β	SE	C.R.	p		
심리적 반발심 ← 상담에 대한 낙인	자의	.241	.209	.130	1.854	.064	a1
	타의	.421	.398	.089	4.748	***	b1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낙인	자의	.300	.330	.085	3.545	***	a3
	타의	.316	.307	.068	4.626	***	b3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 심리적 반발심	자의	.050	.062	.092	.539	.590	a2
	타의	.283	.281	.088	3.204	.001	b2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자의	-.501	-.510	.087	-5.775	***	a4
	타의	-.678	-.702	.065	-10.491	***	b4
심리적 반발심 ↔ 상담에 대한 기대	자의	.116	.321	.044	2.644	.008	a5
	타의	.083	.233	.034	2.402	.016	b5

*** $p<.001$

담에 대한 낙인에서 심리적 반발심 경로(a1) 경우는 자의적 집단은 $\beta=.209$ 로 중간 효과를 보였으나 타의적 집단 경로(b1)의 경우는 $\beta=.398$ 로 큰 효과가 나타났다.

표 21에서는 상담신청 계기에 따른 두 집단 간의 효과성과 유의도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결과를 보면 자의적 집단의 경우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의 간접효과 (.013, $p=.639$)와 심리적 반발심에서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으로 가는 직접효과(.062, $p=.609$)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간접효과(-.007, $p=.639$)는 부적(-) 효과를 주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타의적 집단의 경우는 모든 효과성이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심리적 반발심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경로에서는 두 집단 모두 부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는 자의적 집단은 .330, $p=.002$, 타의적 집단은 .307, $p=.002$ 이며,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자의적 집단은 -.007, $p=.639$, 타의적 집단은 -.078, $p=.003$ 으로 부적(-)효과를 보이지만 총 효과에서는 자의적 집단은 .323, $p=.002$, 타의적 집단은 .229, $p=.002$ 로 모두 정적(+).효과를 나타내어 직접효과보다 다소 낮은 효과를 보였다. 즉, 상담에 대한 낙인이 상담에 대한 기대로 가는 경로에서 자의적·타의적 집단 모두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이 부적(-)효과로 작용하여 총 효과가 상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로계수에서의 상담신청 계기에 따른 모수 차이는 자의적·타의적 집단의 모수 쌍대

표 21.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집단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및 유의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자의	타의	자의	타의	자의	타의
심리적 반발심 ← 상담에 대한 낙인	.209 ($p=.071$)	.398 ($p=.002$)	-	-	.209 ($p=.071$)	.398 ($p=.002$)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 상담에 대한 낙인	-	-	.013 ($p=.639$)	.112 ($p=.003$)	.013 ($p=.639$)	.112 ($p=.003$)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낙인	.330 ($p=.002$)	.307 ($p=.002$)	-.007 ($p=.639$)	-.078 ($p=.003$)	.323 ($p=.002$)	.229 ($p=.002$)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 심리적 반발심	.062 ($p=.609$)	.281 ($p=.003$)	-	-	.062 ($p=.609$)	.281 ($p=.003$)
상담에 대한 기대 ← 심리적 반발심	-	-	-.032 ($p=.609$)	-.197 ($p=.003$)	-.032 ($p=.609$)	-.197 ($p=.003$)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510 ($p=.002$)	-.702 ($p=.002$)	-	-	-.510 ($p=.002$)	-.702 ($p=.002$)

표 22.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 집단의 모수 쌍대비교 차이

	a1	a4	a3	a2
b1	1.141	7.432	.986	2.901
b4	-6.325	-1.637	-9.183	-6.459
b3	.507	7.399	.144	2.318
b2	.262	6.334	-.145	1.824

자의적 상담신청집단의 경로 = a, 타의적 상담신청집단의 경로 = b

표 23.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 집단의 경로 제약 결과표

경로제약	χ^2	df	$\Delta \chi^2/df$	$\Delta \chi^2 \text{Sig. dif}$
자유모형	6.579	2		
심리적 반발심 ← 상담에 대한 낙인 (a1=b1)	7.874	3	1.295	non Sig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 심리적 반발심 (a2=b2)	9.874	3	3.295	non Sig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낙인 (a3=b3)	6.599	3	0.02	non Sig
상담에 대한 기대 ←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a4=b4)	9.182	3	2.603	non Sig

df=1, $\Delta \chi^2/df \geq 3.84$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비교 하는 C.R.값을 통해도 파악이 가능하다. a1과 b1, a2와 b2, a3과 b3, a4와 b4의 대응하는 모수의 쌍대비교 차이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두 집단 간의 서로 대응하는 모수의 차이는 유의수준 $p=.05$ 에서 C.R.값이 1.96보다 모두 작으므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에서는 자의적·타의적 집단의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Delta \chi^2/df \geq 3.84$)를 나타내는 모든 경로가 $\Delta \chi^2/df$ 는 3.84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담신청 계기에 따른 두 집단의 경로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경로제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청소년 내담자가 가지는 상담에 대한 낙인이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인 심리적 반발심과 비자발성의 매개변인을 통해서 상담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와 효과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별 및 상담신청 계기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경로분석을 하였다. 청소년 내담자가 가지는 상담에 대한 낙인이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을 매개하여 상담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수정지수의 제안에 의

해서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기대 간의 공분산을 설정하여 수정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수정지수에 근거한 모형을 수정할 경우 type-I error rates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유발(MacCallum et al., 1992)하지만 본 연구는 변인의 전체적인 모형으로 가정하고 구조적 관계의 확인이 아닌 탐색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구조적 모형을 통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보고자하는 탐색적 연구인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청소년내담자의 개인적 요인인 심리적 반발심이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에 선행하여 상담에 대한 낙인의 상담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매개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는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결과, 상담에 대한 낙인의 상담에 대한 기대에서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내담자는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이 상담에 대한 낙인의 상담에 대한 기대에서 선행하여 영향 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상담에서 내담자가 가지는 특수성과 환경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김계현, 1996), 상담 받는 당사자가 외부의 압력에 의한 상담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보인다는(김혜숙 등, 1996)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모형의 효과성을 분해해 본 결과, 모든 경로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경로에 따른 효과성을 살펴보면 심리적 반발심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간접효과와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직접효과는 모두 부정(-)효과를

주었다. 이는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직접효과는 정적(+)효과를 나타냈지만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이 매개한 간접효과에서는 부정(-)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이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기대로 가는 간접효과에 영향을 주어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낙인은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이민지, 손은정, 2007; Vogel et al., 2007)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인 심리적 반발심과 가정 및 학교 등의 외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담에 대한 기대에 부정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매개모형의 적용성을 통하여 연구모형의 다중집단 적용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집단 간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남녀 청소년 내담자집단과 상담신청 계기에 의한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연구모형 적합도와 차이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집단의 차이와 상담신청계기에 따른 집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성별에 따른 집단의 차이와 상담신청계기에 따른 집단에 있어서 일부 경로계수, 효과성, 모수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남녀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는 심리적 반발심에서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의 경로계수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상담신청 계기에 따른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집단의 경우는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심리적 반발심, 심리적 반발심에서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에 이르는 경로계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성별과 상담신청 계기에 따른 집단에서 모두 상담에 대한 비자

발성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경로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효과성 분해에서도 심리적 반발심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간접효과와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에 이르는 경로에서 직접효과가 모두 부적(-)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부적(-)효과는 상담에 대한 낙인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에 이르는 총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여 집단과 상담신청제기에 따른 각각의 집단 간 모수차이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내담자와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이해성 등(1996)이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학교상담실이나 상담기관에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혹은 교사에 의해 상담을 받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청소년 내담자 중에서 전체 61%가 타의에 의한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에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긍정적인 상담자-내담자 관계가 성립해야 하지만 (Dean, 1958), 청소년 상담은 자의에 의한 상담보다는 타의에 의한 상담이 많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는 상담에 대한 동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상담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Ivanoff, 1994)을 추론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의적 상담신청집단은 청소년 내담자 자의에 의한 전문적 도움을 청하였거나 부모, 교사, 친구 등과 상의 후에 자신이 직접 상담을 의뢰한 집단이다. 이는 Dean(1958)이 제시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상

담이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긍정적인 상담자-내담자 관계가 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타의적 상담신청집단은 부모, 교사, 친구 등 강요에 의하여 상담에 의뢰되었거나 혹은 학교에서의 징계 및 법적 처벌로 인한 상담에 의뢰된 집단이었다. 타의적 상담신청집단의 경우, 비자발적인 내담자가 될 수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타의에 의한 내담자는 부모나 의뢰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상담실을 내방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문제를 자신보다는 외부의 압력으로 생각한다(Hepworth & Larsen, 1993). 따라서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강요에 의한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 동기화 되어있지 않은(Vriend & Dyer, 1973)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의적 상담신청집단과 타의적 상담신청집단은 전문적 도움요청과 상담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두 집단 간에 내담자가 가지는 상담에 대한 낙인, 비자발성, 기대, 심리적 반발심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는 자의적 상담신청 집단과 타의적 상담신청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청소년의 발달적 차원의 이해뿐만 아니라 환경적·상황적 요인을 고려한 상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내담자가 자의에 의한 전문적 도움과 상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내담자들이 속해 있는 사회 및 또래 관계에서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상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

하며, 상담을 받는 상황을 내담자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화되었으므로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닌, 자신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전문적 도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내담자의 다중집단분석의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른 남녀의 차이나 상담신청계기에 따른 자의적 상담신청집단과 타의적 상담신청집단에 있어서 일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차이만 있을 뿐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타의에 의한 상담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담을 의뢰한 인물, 부모 혹은 교사에 대한 심리적 반발심으로 인하여 상담에 대한 불만과 저항, 거부 등이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의적·타의적 상담신청집단 모두 상담에 대한 낙인의 상담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심리적 반발심과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경로분석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의에 의해서 상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담에 대한 낙인, 심리적 반발심, 비자발성으로 인해 상담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상담의 특수성과 상담에 대한 사회인식이 현재까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이 체벌이나 징계차원의 훈육이 아닌 내담자의 자아성장과 성숙을 위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상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상담의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매개변인으로 선정한 요소 부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상담에 대한 기대의 연구에 있어 부적(-) 요인만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에 대한 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매개변인인 개인적 요인인 심리적 반발심이 상담진행 혹은 상담과정 중의 요인인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에 선행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이 모두 부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결과에서도 부적 영향이 예상된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담연구에 있어서 내담자의 개인적 요인과 청소년상담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상담에 대한 기대에 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과 그 매개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의 상담이 성인상담과는 다르게 청소년의 특수성과 환경적 혹은 상황적 요인들로 인하여 상담에 대한 동기화 부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상담에 있어 상담에 동기를 부여하고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적(+) 요인은 상담자의 상담경력과 상담의 진행 회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담회기가 측정시기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상담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정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회기를 선정하였으나, 청소년 내담자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내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상담의 회기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담회기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상담이 장기적인 회기로 진행될 경우 상담자의 역할 또는 요인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특성에 대한 요인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부분은 상담에 대한 정적(+)요인으로 상담에 대한 기대 척도에 있어서 하위차원인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상담자 특성’, ‘상담과정 특성’이 내담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구조적 관계와 매개모형의 경로분석과 더불어 각각의 척도의 하위차원에 대한 내용과 내담자의 부적(+)요인과 정적(+)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이 추가적 연구가 된다면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표본표집에 있어서 12개의 청소년상담관련 기관의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회수율 34%(197명)로 연구의 일반화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연구자의 개인적 용도를 위한 것으로 표본표집에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내담자에게 설문의를 의뢰하기까지 담당자와 여러 단계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설문 의 누락이 예상되므로 표본표집 대상을 크게 잡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담자는 진솔한 마음에서 나오는 내담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고 상담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 요인들이 감소되길 바라며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상담 환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금명자, 이장호 (1990).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3 (1), 23-45.

금명자 (2002). 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 및 문화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29-545.

김계현 (1996).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성원사.

김석용, 안성수 (2009). 사회행태과학을 위한 구

조방정식 모델링분석. 서울: 삼영사.

김인규 (1995). 심리적 반발심과 동조성 및 임상적 경향성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숙, 공윤정, 박한샘 (1996). 청소년상담모형 개발 II: 비협조적 내담자의 상담.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박애선 (1985).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운하 (1998).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적 자아개념 및 반발심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준호 (2008).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갈등과 상담 의도와 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성태제 (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학지사.

양미진 (2005). 질적 분석을 통한 비자발적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지속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종필 (2009). 구조방정식모델에서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적용. 2009 AMOS Day 세미나 자료집.

이민지, 손은정 (2007).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 949-966.

이장호, 김환 (2005). 상담면접의 기초. 서울: 학지사.

이혜성, 금명자, 박경애, 이재창 (1996). 청소년 개인상담.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조성호 (1997). 내담자 저항과 내담자 반발성, 상담자 개입 특성 및 작업 동맹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찬석, (2004). 청소년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측면 탐색연구: 개념도 방법론을 통한 상담자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덕웅, 박준호 (2005).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생각억제와 자기노출이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 홍성목, 김선주, 이만영 (1994). 청개구리 심보: 심리적 반발심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1), 153-166.
- 황채운 (2003). 상담에 대한 낙인과 상담요청 의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ehm, J. W. (1966).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New York: Academic Press.
- Brehm, J. W., & Brehm, S. S. (1981). *Psychological reactance*. New York: Academic Press.
- Corrigan, P.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 614-625.
- Dean, S. I. (1958). Treatment of the reluctant a client. *American Psychologist*, 13, 627-630.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oodyear, R., & Parish, T. S. (1978). Perceived attributes of the terms client, patient, and typical pers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4), 356-358.
- Hepworth, D. H., & Larsen, J. A. (1993). *Direct social work practice: Theory and skills* (4th. ed). Belmont, CA: Wadsworth.
- Hong, S., & Page, S. (1989). A Psychological Reactance Scale: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reliability. *Psychological Reports*, 64, 1323-1326.
- Ivanoff, A. M. (1994). *Involuntary client in social in social work*. New York: Aldine de Gruyter.
- Joubert, C. E. (1990).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psychological reactance and other personality variables. *Psychological Reports*, 66, 1147-1151.
- Judge, A. B. (1997). *Psychotherapy and stigma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tigma as it is attached to seeking psychotherap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USA.
- Klein,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miya, N., Goo,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38-143.
- Larrabee, M. J. (1982). Working with reluctant client through affirmation techniqu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 105-109.
- Lauber, C., Carlos, N., & Wulf, R. (2005). Lay beliefs about treatment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their implications for antistigma strategie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0, 745-752.
- MacCallum, R. C., Roznowski, M., & Necowitz, L., (1992). Model modification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problem of capitalization on chance, *Psychological Bulletin*,

- 111, 490-504.
- Mechanic, D. (1980). *Mental health and social policy*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atterson, C. H. (1958). "Client expectation and social counseling" *Personal Guidance Journal*, 37, 136-138.
- Riordan, R. J., Matheny, K. B., & Harris, C. W. (1978). Helping counselors minimize counselor reluctance. *Counseling Education and Supervision*, 18, 6-13.
- Rogers, C. (194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Rooney, R. H. (1992). *Strategies for working with involuntary cli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atterfield, W. A., Buelow, S. A., Lyddon, W. J. & Johnson, J. T. (1995). Client Stages of Expectations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76-47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ibicky, M., & Dovidio, J. F. (1986). Stigma of psychological therapy: Stereotypes, interpersonal reactions, and the self-fulfilling prophe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148-154.
- Strong, S. R. (1968). Counseling: An interpersonal influence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5, 214-224.
- Tinsley, H. E. & Harris, D. J. (1976). Client expectation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537-543.
- Tinsley, H. E. A., Workman, K. R., & Kass, R. A. (1980). Factor analysis of the domain of client expectancies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6), 561-570
- Tracey, T. J., Ellickson, J. L., & Sherry, P. (1989). Reactance in related to different supervisory environments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336-344.
- Trotter, C. (1999). *Working with involuntary client*. London; Thousand Oaks, Cliff: Sage Publication.
- Vogel, D. L., Wade, N. G., & Haake, S. (2005). Measuring the self-stigma associated with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325-337.
- Vogel, D. L., Wade, N. G., & Hackler, A. H. (2007). Perceived public stigma and the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he mediating roles of self-stigma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40-50.
- Vriend, J., & Dyer, W. (1973). Counseling the relucta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 240.
- 원고접수일 : 2009. 08. 19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4. 18
게재결정일 : 2010. 05. 15

Adolescent Client's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of Stigma, Expectation, Involuntary, and Psychological Reactance for Counseling

Mi-Sook Kim

Mi-Sun Yoon

Dankook University

This current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stigma to counseling and their expectation of counseling. Subjects of the study were consisted of 197 male and female adolescents ranging age 13 to age 18, who have received counseling services at least one time from a adolescent counseling center.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 direct effects of stigmas on expectations as well as the indirect effects through involuntary and psychological reactance to counseling were significant. when parameter estimates in the modified path model was compared between two groups of interes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estimates between the two gender groups and the two groups who were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receiving a counseling service. Limit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to counseling were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 counseling, counseling stigma, counseling expectation, psychological reactance, involuntary counseling,

부 록

▷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문항

문항내용	문항번호
만약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나는 상담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
상담에 오기는 했지만, 그다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2
나는 내가 상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3
상담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상담자는 나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나를 생각한다.	5
나는 상담자의 말에 대답하기 싫어서 종종 침묵한다.	6
상담자와 대화하는 것이 귀찮아서 ‘네’ 혹은 ‘아니요’라고만 대답한다.	7
상담자가 나를 대하는 모습이 가식적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상담실에 오기가 정말 싫다.	9
나는 상담이 지루하다	10

▷ 본 연구에서 조사된 청소년내담자의 상담 유형

		빈도(명)				백분율(%)			
		남	여	자의	타의	남	여	자의	타의
이전 상담 경험	있다	28	42	36	34	26.4	46.2	47.4	28.1
	없다	78	48	39	87	73.6	52.7	51.3	71.9
	무응답	0	1	1	0	.0	1.1	1.3	.0
전 체		106명	91명	76명	121명	100%	100%	100%	100%
(중복응답 문항)	가족	12	19	76	18	9.0	15.3	12.5	11.8
	일탈/비행	22	19	9	32	16.5	15.3	8.7	20.9
	학업/진로	16	11	10	17	12.0	8.9	9.6	11.1
	성	2	0	1	1	1.5	0	1.0	.7
	호소	14	14	20	8	10.5	11.3	19.2	5.2
	문제	10	23	20	13	7.5	18.5	19.2	8.5
	학교생활	41	24	19	46	30.8	19.4	18.3	30.1
	생활습관/외모	3	41	5	2	2.3	3.2	4.8	1.3
	컴퓨터/인터넷	5	0	1	4	3.8	0	1.0	2.6
	정보제공	1	1	1	1	.8	.8	1.0	.7
	정신건강	2	8	3	7	1.5	6.5	2.9	4.6
	기타	5	1	2	4	3.8	.8	1.9	2.6